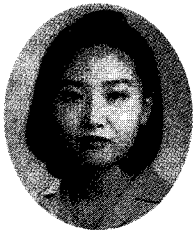


“엄마 젓 최고! 함께해요~ 아빠!”

## 모유수유, 아빠의 힘을 보여 주세요

지난 8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“엄마 젓 최고! 함께해요~ 아빠!”라는 주제로 엄마 젓 먹이기 행사가 열렸다. 대학생, 미혼남성, 예비아빠들이 엄마 젓을 먹이기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. 엄마 젓을 먹이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따뜻한 배려가 무엇보다 절실하다.



최 서 희  
KBS 보도국 기자

### 남성도 먹일 수 있는 엄마 젓

‘엄마 젓 최고! 함께해요~ 아빠!’ 처음 이 제목으로 취재계획서를 올렸더니 남자 선배들이 물어봤다.

“남자는 젓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모유를 먹이냐?”

그만 웃고 말았는데 취재를 하면서 엄마 젓을 먹이는데 남편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.

8월 2일 오전 서울역 광장.

‘엄마 젓 최고! 함께해요~ 아빠!’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엄마 젓 먹이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.

곳곳에서 유모차를 끌고, 아이를 업고 부인과 함께 행사장으로 들어오는 남편들의 모습이 보였다.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듬뿍 담긴 모습이었다.

살이 탈 것처럼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아빠들은 엄마 젓 먹이기에 동참한다는 다짐을 했다.

“우리는 현명한 아빠로서 엄마 젓으로 아기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앞장선다!”

대학생과 미혼의 직장인 등 미래에 아빠가 될 예비 아빠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. 인터뷰에 응한 한 남자 대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.

“부모가 자기 편하자고 모유를 안먹이면 자녀가 자라서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? 저는 당연히 모유를 먹여야 한다고 생각해요. 제가 옆에서 도울 거예요.”

### 엄마 젓 먹이기, 남편의 배려 덕분

행사가 끝난 뒤, 엄마 젓 먹이기를 주재

로 시를 써 상을 받은 배미숙씨 집을 찾았다. 초등학교 교사인 배미숙씨는 둘째 딸 채연이에게 엄마 젖을 제대로 먹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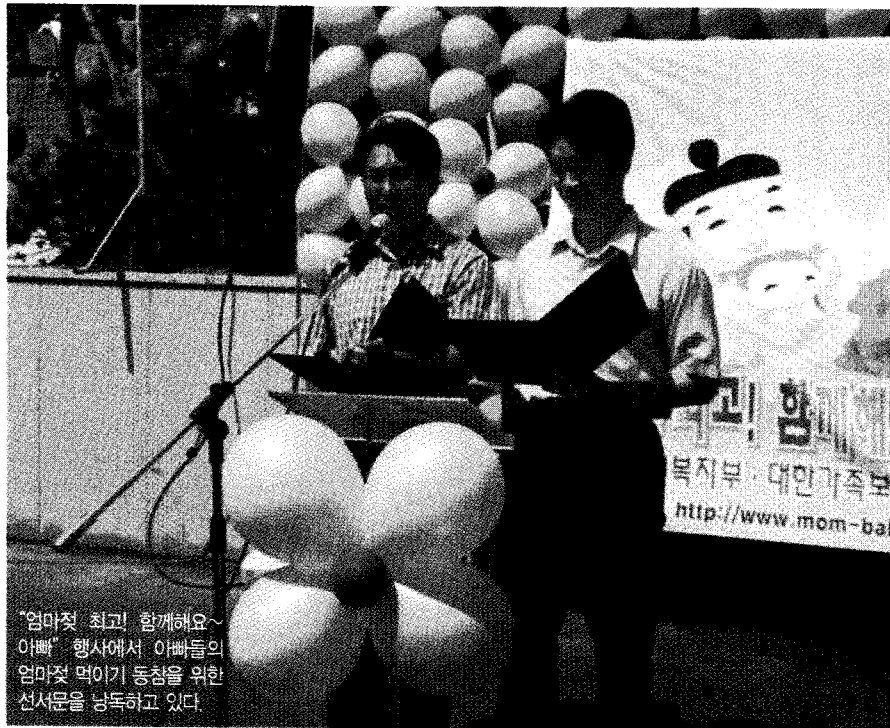
한창 심술부리고 장난치기 좋아할 나이인 네 살 첫째 아이까지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엄마 젖을 먹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남편이 옆에 있어 8개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모유를 먹일 수 있었다. 남편 함준호씨는 퇴근 후나 주말에 밀린 빨래며 설거지, 청소 등 가사일을 기꺼이 분담했다.

덕분에 채연이는 튼튼한 아이가 됐다. 오빠 지훈이는 엄마젖을 먹이지 않아 아토피로 고생했지만 채연이는 아토피 증상도 없고 그 흔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. 몸무게도 10킬로그램이나 나갈 정도로 건강하다.

배씨는 행사장에서도 채연이에게 모유를 먹일 만큼 공공장소에서 모유 먹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. 모유 먹이는 게 이만큼 자연스러워진 것도 다 남편 덕이라는 게 배미숙씨의 말이다.

### 아빠의 따뜻한 격려, 아내에게 힘을

실제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결혼한 여성 7백명을 대상으로 묻은 결과 모유 먹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남편이라는 응답이 76%로 가장 많았다.



“엄마젖 최고, 함께해요~  
아빠! 행사에서 아빠들의  
엄마젖 먹이기 동참을 위한  
선서문을 낭독하고 있다.”

엄마들이 직장이나 지하철에서 모유를 짜거나 먹일 때 주변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. 의지가 꺾인다. 가까운 사람들까지 ‘힘든 데 뭐 그렇게 까지 하나’, ‘요즘 좋은 분유도 많은데 적당히 해라’ 라고 말하면 엄마는 몇 번 모유를 먹이다 포기하게 된다.

이 때, 남편의 격려는 큰 힘이 된다.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 내 한몸 고생해도 된다는 엄마의 ‘원초적 모성’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.

특별히 큰일을 안해도 된다. 따뜻한 격려 한 마디도 아내에게 적지 않은 힘과 도움이 된다. 결과적으로 우리 아기에겐 그 시기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건강을 선물하게 된다.

아빠 여러분! 아내에게 힘을 주세요~